

전문가칼럼

극한호우 시대, 농경지 배수개선도 달라진다

김우상 |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17일 거제에서는 하루 630mm가 넘는 재난 수준의 비가 쏟아졌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과 기준만으로는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자연 배제가 가능했던 지역마저 새로운 침수 위험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 중에도 과거 설계기준이 적용되었거나 시설이 노후화돼 극한호우를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이처럼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넘어 기후환경이 달라진 만큼 농경지 배수의 기준과 방식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한 강우 특성과 영농 환경을

반영해 배수개선 사업의 설계기준과 사업 대상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먼저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벼 20년, 밭작물 30년 빈도로 적용하던 배수장 설계기준을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실제 강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우분포 분석 방식을 개선해 향후에는 기후변화 국가표준 시나리오나 검증된 미래 기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강우 자료만을 기준으로 시설을 설계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변화하는 기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배수개선의 대상도 달라지

고 있다. 그동안 농경지 배수는 벼 재배를 중심으로 설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시설원에 등 침수에 취약한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며 안정적인 배수기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공사는 2026년 신규 착수 43개 지구 가운데 30개 지구를 시설원에 등 타작물 재배지역으로 선정했다. 벼 중심이던 배수개선사업을 밭작물과 시설원에까지 넓혀 국가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사업의 속도 또한 중요해졌다.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는 것과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얼마나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배수장을 다른 공정보다 우선 시공하고,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침수 피해를 줄이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충남 부여 라복지구에서는 배수장을 다른 공정보다 우선 시공하고, 밭주 절차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앞당겨 배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조정해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기후위기 시대 재해 대응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달라진 강우 양상과 영농 환경을 반영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취약지역에는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갖춰야 한다. 농경지를 지키는 일은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후와 현장의 여건을 모두 살피나가며, 보다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나갈 것이다.